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2. 01	02. 08	02. 15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최종열 성도	정환영 형제
성 경 봉 득	김정규 형제	최종열 성도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1월의 축복 인사 :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요

1. 함께 예배드께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예배 후 2025년 결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4. 성찬식 – 다음 주일(1일)은 성찬식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도 준비해주세요.
5. 일시귀국 – 정수영 형제(30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6. 1월 생일 – 류지수자매, 정환영형제, 이예준 형제
7.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이예준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1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영 Chor	-----	반주자
*기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Gemeindelied	322장	다같이
기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암 2:13-16(구p1276) (Amos 2:13~16)	최상우 형제
특별찬송 Sonderlied		정환영, 최상우
교회사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공평하신 하나님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현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일어나 함께 가는 교회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공평하신 하나님

아모스서 2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을 넘어, 유대와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외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언약 백성들에게도 엄중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관계의 친밀함을 이유로 죄를 눈감지 않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은 구조적인 불의와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의인을 은으로 팔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짓밟으며, 약자를 착취하는 삶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스스로 죄의 구조 속에 자신을 묶어버린 자기노예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음에도, 그들은 다시 탐욕과 안일함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아모리 사람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무지해서 죄에 빠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특권은 면죄부가 아니며, 선택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의 이름으로 죄에 끌들여질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의식은 여전히 두려움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노예화에서 벗어나는 길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것은 주체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죄의 구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 앞에서 삶을 재정렬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자기노예화 속에 머물러 있는가?
2.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가치관 중 변화되어야 할 의식은 무엇인가?